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

(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 | |
|----------|-----|
| 의안 번호 | 193 |
|----------|-----|

발의년월일 : 2019. 6. 7.

발 의 자 : 조대영, 최선근, 이재안, 신재걸,
강희문, 배용주, 김기영, 최익순,
허병관, 김복자, 정규민,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 주 문

- 별첨 “건의문” 과 같음.

2. 제안이유

- 제2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에서 낙후된 강원도에 반드시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되어야 함과 동시에,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영동권 거점도시 강릉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원도의회회의장, 강원도지사.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



강릉시의회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문

지난, 2005년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선정에서 강릉시는 유치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시된 정치적 논리와 특정지역에만 유리한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강원도 영서권이 선정 되었습니다.

당시 선정 기준에서 강릉시는 「도시개발의 적정성」과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에서 경쟁도시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으나, 선정 배점이 가장 높은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 발전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한 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도농통합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의 인구는 23만 명 내외로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만, 혁신도시로 선정된 원주시는 35만 명,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는 2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강릉시는 21만 명으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성에서 삼척까지의 동해안 5개 시·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머지않아 지방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강원도 영동권 수부도시인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지정된다면 동해 무역항, 양양 국제공항, 속초 크루즈항 등과 연계하여 동해안 전역으로 혁신도시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강릉시는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완벽한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강릉선 KTX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건강·웰빙, 교육, 문화, 레저 등 「최고의 정주환경」을 구비하였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KIST강릉분원 등의 해양바이오·천연물 산업, 3D프린터를 비롯한 각종 신소재 산업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유치 시, 이미 검증된 약 33만^m의 사업부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도시개발이 용이하고, 부지매입의 경제성 등에서도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되고 준비된 기반을 갖춘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돼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동해안권 관광벨트의 시작이자 북방물류의 핵심도시로서 강릉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는 영동권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성공적 역할을 수행할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릉시민 한분 한분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